G. Eliot와 T. Hardy의 小說에 나타난 英國的인 保守主義

梁 永 洙

目 次

Ⅰ. 서 론
Ⅱ. 본 론
1. G. Eliot에 있어서의 過去의 意味 : 現在의 人間이 過去를 解釋한다.
2. T. Hardy에 있어서의 過去의 意味 : 現在는 過去의 業報에 의해 決定된다.
Ⅲ. 결 론

Ⅰ. 서 론

영국 철학은 경험론적인 眞理觀이 主流를 이루고, 영국적인 정치 발전은 온건한 개혁을 지향하며, 영국의 국민성은 현실주의적 보수주의적인 경향이 강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통념일 것이다.[1]

---

1) 현대 중국의 碩學 林 語堂은 主要國家들의 國民性을 分析하는 다음과 같은 圖式을 提示하고 있는데, 그의 評에 의하면 영국인은 중국인과 더불어 개혁의 理想보다도 전통과 현실을 중시하는 保守主義者들로서 歐美의 어느 국민들보다도 健實하고 安定된 국민성을 갖고 다.

英國人 $= R_3 + D_2 + H_2 + S_1$
美國人 $= R_3 + D_3 + H_2 + S_2$
프랑스人 $= R_2 + D_3 + H_3 + S_3$
獨逸人 $= R_3 + D_4 + H_1 + S_2$
러시아人 $= R_2 + D_4 + H_1 + S_1$
中國人 $= R_4 + D_1 + H_3 + S_3$

R : Reality, D : Dream, H : Humour, S : Sensitivity

以上 *The Importance of Living*(New York : Reynal & Hitchcock, 1937)의 번역본「生活의 發見」(乙酉文化社 刊 世界思想全集 32卷, 서울, 1983), pp. 24~6 參照.

그리고, 英國史 研究의 權威者인 프랑스 사람 André Maurois는 영국민의 順應力의 源泉을 保守主義에서 찾고 있다.

이 말은 André Maurois著「英國史(下卷)」(崔乙林 譯, 瑞文堂, 1981) p. 313 參照

영국인이 지니는 이러한 보수주의적인 특징을 영국 소설가의 작품 속에서 찾아 보려고 하는 것이 이 논문의 목적인데 필자의 主觀的인 獨斷性과 恣意性을 최대한으로 줄이기 위하여 되도록 많은 수의 작품을 분석 대상으로 삼았으며, 그것도 영국적인 보수주의의 대표자들이라고 생각되는 작가들의 작품을 골라 보았다. G. Eliot는, 현대 문학의 한 특징인 主知主義의 경향을 일찍부터 띠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近代的인 산업혁명의 물결과 反基督敎的인 회의주의에 물들지 않은 영국 在來의 생활 양식에 대해 깊은 애정과 자부심을 갖는 위에[2], 文明은 原始性과 現代性의 共存위에서 이루어진다고 공언했던[3] 인물이고, T. Hardy 역시 사라져 가는 영국 농촌의 풍습이나 신화·전설에 대한 깊은 애착 위에서 작품을 쓴 사람이었다. 그리하여 이들 두 작가의 한 가지 공통점은, 급격한 시대 변화를 겪는 도시 환경보다도 古來로부터의 전통과 풍습이 대체로 溫存하고 있던 시골 지방을 작품 무대로 설정했다는 것인데, 이 점은 영국적인 보수주의를 대표하는 작가로서 이들 두 작가를 선택하는 것을 정당화시켜 준다 하겠다.

시대적인 변화 앞에 선 인간이 부딪치게 마련인 보수주의의 문제, 즉 과거의 현재에 대한 決定力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는 명제에 있어서 G. Eliot와 T. Hardy의 작품들은, 兩人에게 공통되는 보수주의적인 특징에도 불구하고, 뚜렷이 구별되는 기본 입장 위에 서 있는 것같다. G. Eliot에게 있어서는, 過去의 現在的인 의미는 인간의 주체적인 의지에 의해 선택된다는 입장인데 비해서, T. Hardy에게 있어서는 과거의 내용이 현재의 상황에 대해 갖는 決定力이 너무 不可抗力的이라서 인간의 의지에 의한 선택의 여지가 별로 없다고 하는 입장이다. 〈現在에 의한 過去의 選擇〉이라고 하는 G. Eliot의 기본 입장은 아래에서 살펴보게 될 그녀의 소설 작품에서 뿐만 아니라 전통적인 기독교에 대한 그녀의 인간중심적인 해석 태도에서도 엿볼 수 있다. 近代的인 合理主義의 입장에 서서 전통적인 기독교의 초월적인 神觀을 믿지 않았다는 점에서 과거의 속박에서 벗어나 있던 그녀가 전통적인 기독교의 도덕관과 그에 기초한 인간 존엄성에 대한 신념을 기꺼이 받아들이려고 했던 것은 현재에 준거한 과거의 再解釋이라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해서 그녀가 기독교적인 사랑의 행동 규범을 받아들인 것은 종래의 기독교 사상에서처럼 그것이 초월적인 神意에서 나왔다고 보기 때문이 아

2) T. Pinney는 G. Eliot 소설의 보수주의적인 특징을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the chief values of the novels are on the whole conservative, cherishing what is known and familiar, seeking the good in outmoded forms, and remaining skeptical of all hopes for swift and inevitable progress. When George Eliot wrote to one of her correspondents that "the bent of my mind is conservative" she appealed to her novels for the proof of her description. George Eliot had been taught by history and by "nature's gradual processes" to distrust all abstract schemes, and to reverence the life of the past as a guide for the present.

以上 G. R. Creeger, ed., *George Eliot* (Eaglewood Cliffs, New Jersey: Prentice-Hall, Inc., 1970), p. 40~1 參照

3) G. Eliot는 그녀 자신이 편집한 評論誌 *Westminster Review*, LIV(1851)에서 다음과 같이 자기의 문명관을 밝히고 있다.

Our civilization, and, yet more, our religion, are an anomalous blending of lifeless barbarisms, which have descended to us like so many petrifactions from distant ages, with living ideas, the offspring of a true process of development.

以上 R. P. Draper, ed., *The Mill on the Floss & Silas Marner* (Hong Kong: The MacMillan Press Ltd., 1982), pp. 40~1에서 인용.

니라 오랫동안의 인간 경험에 의한 역사적인 소산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고[4] 인간 경험에 기초한 共感的 道德觀의 형성은 그녀의 문학 사상의 주요한주제로 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그녀에게 있어서는, 과거가 가질 수 있는 여러가지 의미들 가운데에서 어떤 것이 선택되는가 하는 것은 現在속의 인간의 주체적인 해석 태도 여하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비해서, T. Hardy에 있어서의 過去의 의미는 인간의 주체적인 의지 작용에 의해 선택되어지는 면이 별로 없는 것 같다. 그의 주인공들의 행위는 자기 스스로의 의지와 선택에 의해 이루어진다기보다도 미리 예정되어진 운명의 길을 간다는 느낌을 주는데, 그들의 운명은 *Tess of the d'Urbervilles*에서처럼 사회 관습의 힘에서 나온 것이든, *The Return of the Native*와 *The Mayor of Casterbridge*에서처럼 주인공 자신이 과거에 저지른 크고 작은 행동들의 연쇄작용에 의한 것이든, 먼 과거에서부터 이미 마련되어진 내용의 것이다. 비유적인 표현을 쓴다면, G. Eliot에게 있어서는 과거의 내용들은 인간의 손바닥위에 펼쳐져서 자유로운 인간의 뜻에 따라 선택되어지는 데 비하여, T. Hardy에게 있어서의 과거는 人間의 視力 限界밖에 도사리고 있다가 無力한 인간의 뒷덜미를 잡고서 알지 못하는 暗黑속으로 그를 끌고 가는 거대한 힘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이들 두 작가의 대조적인 보수주의를 그들의 구체적인 작품 내용을 통하여 살펴봄으로써 上記한 대로의 필자의 견해를 뒷받침해 보고자 한다.

Ⅱ. 본 론

1. G. Eliot에 있어서의 過去의 意味 : 現在의 人間이 過去를 解釋한다.

가. *The Mill on the Floss*

G. Eliot의 自敍傳的인 소설 *The Mill on the Floss*는 Tulliver 집안의 다정다감한딸 Maggie가 펼치는 불행한 사랑 이야기로 엮어져 있는데, 우리가 찾으려고 하는 바 〈現在에 작용하는 過去의 힘〉 즉 보수주의적인 특징도 바로 이 Maggie의 행동 방식 가운데에 나타나 있다. 그런데 Maggie의 성격은 그녀의 오빠 Tom과 비교해서는 보수주의적이기보다는 혁신적인 면을 다분히 지니고 있음이 사실이다. 눈앞의 현실만을 의식할 뿐 현실세계 너머의 상상세계를 모르고 先代로부터의가문 위신 세우기에 급급하여 새로운 사회 관계 모색을 외면 해버리는 Tom이야말로 이 작품속의 누구보다도 가장 확고한 보수주의자임에 틀림없다. 아버지 Mr. Tulliver의 물방아가 Wakem 변호사의 간교한 술책에 의해 파산당한 후 아버지의 유언인 가문의 복수에만 전념하는 그는 Maggie가 Wakem 변호사의 不具 아들인 Philip과 맺으려는 애정관계를 무자비하게 가로막으려 한다. 先親代에 있었던 Wakem家와의 不和 관계를 청산하고 누이 동생의 열렬한 인간애를 실현시켜 줌으로써 자기 가문의 再起 回生을 도모할 수도 있다는 과거탈피적인 태도변경은 그의 요지부동한 고정관념때문에 고려될 수도 없는 일이었다. Wakem 변호사가 Tulliver 집안에 대한 뿌리깊은 원한을 씻고서 자기 아들

4) G. Eliot의 人本主義的인 基督敎 解釋에 대해서는 G. R. Creeger의 앞 책 p. 14~36을 參照.

의 간절한 염원대로 Maggie와의 혼인을 허락해 주겠다는 대담한 결단을 내렸을 때 Tom이 보여주는 고집스러운 반대 태도는 편협된 보수주의자의 가장 추악한 모습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의 아버지 Mr. Tulliver가 Wakem에게로 소유권 이전된 물방아간을 치욕을무릅쓰고관리하려는 결심도 과거 역사에 대한 애착이 혁신적인 미래 창조를 제약하는 보수주의의 예라고 생각된다.)

이에 반해서, 어릴 때부터 감수성과 상상력이 발달했던 Maggie는 원수 집안의 아들이라고 해서 애정의 대상에서 배제하지는 않는다는 과거탈피적인 결의를 보여준다. 그러나 Maggie는 자신의 인간애 발휘의 종국적인 대상을 고려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미래의 반려자로서의 Philip보다도 오빠에 대한 과거의 유대관계를 중시하고 있으니, 이것은 그녀의 애정의 過去依存性을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생각된다. 비록 그 오빠가 자기의 예민한 감수성을 이해해 주는 일이 없었던 몰인정하고 근시안적인 사람이었지만, Philip과의 애정생활이 초래하게 될 오빠와의 단절은 동시에 그와의 관계위에서 성립된 그녀의 과거의 의미를 포기하게 만들것이라는 그녀의 태도는 결국 그녀의 過去依存的인 보수성을 말해주는 것이다.

R. H. Lee도 Tom에 대한 Maggie의 애정은 오빠 개인에 대한 감정이라기보다는 자신의 과거와 가족들에 대한 結束感의 결과라고 말하고 있다. 즉 Maggie가 오빠와의 단절을 그토록 두려워 했던 것은 그의 인간적인 매력에 이끌려서가 아니라, Tom의 존재 자체가 그녀의 성장 과정의 배경에 不可缺한 요소였고 그녀의 현재의 정신적인 資產을 이루었던 가족 관계를 대표하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 The point George Eliot is making is not that Maggie's love for Tom is based or must be based in character-affinity and similarity of ambition; but that, being rooted as it is in her earliest memories, her furthest past, and associated with all her childhood, it has a root in life other than the purely personal. ···her love is a love based upon an ineradicable sense of the past, of the sanctity of what has made her what she is; she loves him because he is her brother, because he is of her family, because he is associated with all her past.[5]

Maggie에게 있어서 성격 차이가 큰 오빠를 따르고 존경할 수는 없었지만, 그 오빠와의 관계는 또한 그녀의 가족들간에 있었던 과거의 소중한 추억들과 얽혀 있었기 때문에, 오빠와의 결속 관계를 파괴할 애인을 사귈 수는 없었고, 그리하여 그녀에게 있어서도 과거지향적인 보수주의는 새로운 미래 창조를 위한 혁신적인 결단을 방해하고 있는 것이다.

Philip과의 애정을 단념한 후 失意와 위축감에 빠져 있던 Maggie에게 새로운 애정 상대자로 나타난 남자는 번창하는 사업가의 아들인 미남 청년 Stephen이었는데 그녀의 이 두 번째 애정도 결국은 그녀 자신의 보수주의적인 과거의존성때문에 실패하고 만다. 이 두 남녀의 애정이 실패로 끝난 것은 어쩌면 兩人의 성격 차이 탓일지도 모른다. Maggie처럼 사물에 대한 이해성과 상상력이 뛰어난 女子에게 Stephen처럼 경박하고 겉멋에 흐르는 남자는 어울리지 않는다고도 생각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Maggie가 Stephen에 대한 애정에서는 Philip에게서와 같은 自己獻身을 보이지 않는 것은 성격 차이 이상으로 그녀가 가졌던 과거의 인간관계에 대한 의리감 때문이라고 보는 것이 옳을

5) R. P. Draper의 앞 책 pp. 148~9.

것이다. 성격 문제로 말한다면, Maggie 자신이 본능적인 자기 주장 욕구가 강렬한 여자였는데도 오랫동안의 가난과 고립 상태에서 금욕적인 자기억제를 강요당했으므로, Stephen에게서 풍기는 관능적인 매력에 더욱 이끌릴 수도 있었을 것이고 그의 부유한 가정 환경 또한 가난했던 그녀의 마음을 끌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 그러므로 그녀가 Stephen의 간절한 求愛를 물리친 것은 그녀 자신이 주장하듯이, 과거의 인간 관계에 대한 스스로의 忠實性과 義務感 때문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Maggie는 과거에 자신의 정신적 伴侶者가 되어 주었던 사촌 Lucy와 옛날애인 Philip에 대한 의리를 저버릴 수가 없었고, 이제 다시 Stephen을 사랑함으로써 어릴 때부터의 우정과, 한때 열렬했던 연애의 추억을 회생시킬 수는 없었다는 점에서 Stephen과의 斷交 결심도 Philip과의 그것과 大同小異하다고 생각되는 것이다. 다음 인용에서 보듯이 자신의 행위에 대한 결단이 현재의 상황과 개인적인 욕구만을 근거로 할 수는 없고 과거에 대한 결속감과 동료 인간들에 대한 유대감을 무시할 수 없다는 Maggie의 주장은, 그녀의 성격이 내포하는 휴머니즘의 보수주의적 특성을 잘 부각시켜 준다.

> "If the past is not to bind us, where can duty lie? We should have no law but the inclination of the moment. Faithfulness and constancy mean something else besides doing what is easiest and pleasantest to ourselves. They mean renouncing whatever is opposed to the reliance others have in us. I feel no excuse for myself—none—I should never have failed towards Lucy and Philip as I have done, if I had not been weak and selfish and hard—able to think of their pain without a pain to myself that would have destroyed all temptation. O, what is Lucy feeling now? —She believed in me—she loved me—she was so good to me—think of her…"[6]

Maggie가 Philip과 Stephen에 대한 애정을 단념했던 것은 그녀 자신의 자유 의사에 의한 보수주의적인 선택의 결과였지만, 이 작품의 결말 부분에 나오는 男妹의 溺死 사건은 인간 의지와 自然力의 共同 作用에 의한 過去 復歸라는 점에서 약간의 차이를 지닌다. Maggie와 Stephen의 밤을 새운 보우트 유람이 있은 뒤 Tom은 누이 동생의 정숙성을 의심하여 그녀를 가정에서부터 추방해 버리는데 오빠의 이러한 부당한 박해에도 불구하고 Maggie는 오빠에 대한 血肉의 情을 固守하고 있었으니 한밤 중에 Floss강에 대홍수가 범람하는 것을 보는 순간 그녀가 맨 먼저 걱정한 사람은 오빠 Tom이었다. 연약한 여자의 몸으로 홍수 속에 보우트를 저어 자기를 구하러 온 누이동생을 보자 Tom의 가슴 속에서도 잠자던 血肉愛가 솟아 났고 이리하여 이들 두 男妹는 서로의 양손을 부둥켜 안고 Floss강의 거대한 물결 속에 떠밀려 죽어 간다. Maggie는결국 男妹之間의 緣分 관계를 죽음으로써 수호하려는 태도인데 다만 G. Eliot 작품의 특징인 〈자기 선택에 의한 보수주의적인 행동〉은 自然力의 개입이라는 약간의 수정이 가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Maggie가 과거로부터의 自己同一性을 유지하기 위하여 不滿스러운 과거의 내용 즉 오빠와의 가족 관계를 수호하려고 했지만, 이들 남매의 궁극적인 和合은 超人間的인 운명으로서의 自然力 즉 Floss강의 홍수사건의 개재에 힘입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T. Pinney는, Maggie 남매의 재결합으로 끝나는 이 소설의 구성은 未來價値에 대한 과거의 優位를 의미한다는 다음과 같은 서술을 하고 있다.

6) George Eliot, *The Mill on the Floss* (Middlesex: Penguin Books, 1979), pp. 601~2.

> The past that Maggie has known is by no means perfect, yet it derives, through its hold on the affections, an authority superior to every new claim in her life. And, whatever else one may make of the ending of the novel, its intention is clearly to affirm the supreme value of the early affection of Maggie and Tom for each other[7]

이 작품의 사건 전개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작가의 보수주의적인 취향이 아주 흥미있게 나타난 대목 가운데에 자연의 景觀을 감상하는 Maggie의 독특한 관점에 대한 묘사가 있다. 어느 날 고향을 떠났다가 돌아오던 Maggie는, 고향 마을의 양딱총나무(elderberry)가 아름다울 수 있는 것은 어릴 때부터의 아름다운 추억이 거기에 서려 있어서 우리 자신의 신체나 생활의 일부처럼 느껴지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러한 태도는 후일에 그녀가 오빠와의 結束感을 固守하게 되는 心理的인 背景이 된다고 생각된다.

> There is no sense of ease like the ease we felt in those scenes where we were born, where objects became dear to us before we had known the labour of choice, and where the outer world seemed only an extension of our own personality; we accepted and loved it as we accepted our own sense of existence and our own limbs.[8]

나. *Silas Marner*

*Silas Marner*의 내용 중에서 현재의 인간에게 작용하는 과거의 힘이 강력하게 느껴지는 인상적인 대목은 이 작품의 끝부분에서 Eppie가 자기의 生父 Godfrey Cass 대신에, 자기를 길러준 Silas Marner를 선택하는 장면이다. 자기의 친부모가 누구인지도 모른 채로 Silas Marner의 극진한 사랑을 받으면서 자라난 Eppie는, 자기가 地方 貴族 Godfrey Cass의 친자식임이 밝혀지고 자기의 生父를 따라가면 貴婦人으로서의 화려한 미래를 보장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혜택을 단호히 거부한다. Eppie의 養父 S. Marner는 혈혈단신 외로운 처지에서 자기 생애의 보람을 오직 수양딸 하나를 키우는 데에 걸고 16년 동안을 살아 왔는데 그렇게 정들었던 養父와 헤어진다는 것은 자신의 정신적인 支柱를 포기하는 것으로 생각되었던 것이다. 그런데, S. Marner가 Eppie에게 그녀의 去就에 관한 결정을 그녀 자신에게 맡기면서 血肉의 정을 찾아서 그를 떠나도 좋다고 말할 때에 그녀는 단지 자기가 떠남으로써 양부가 당하게 될 불행만을 생각해서 기른 정을 택하지는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 S. Marner와의 訣別은 동시에 자신의 정신적인 同一體 意識과 삶의 連續性을 파괴함을 의미하였고 그것은 그녀의 자존심과 자기 보존 욕구에 위배되는 일이었다. Godfrey夫婦가 자기들의 지체높은 가문과 넉넉한 재산은 Eppie의 행복한 미래를 보장해 줄 것이라고 말하면서 그녀를 데려가겠다고 주장하자 그녀는 다음과 같이 자기의 소신을 밝히고 있다.

---

7) G. R. Creeger의 앞 책 p. 44.

8) 앞에서 인용한 *The Mill on the Floss*, p. 222.

"Thank you, ma'am——thank you,Sir. But I can't leave my father, nor own anybody nearer than him. And I don't want to be a lady…… I couldn't give up the folks I've been used to."[9]

상류 가정의 생활 방식은 자기에게 생소하고 어울리지 않으며, 養父와 함께 素朴한 庶民 生活을 계속하고 싶다고 말하는 Eppie는, 變化에 대한 희망보다는 과거의 연속과 안정 속에서 자신의 존재 의의를 찾자는 보수주의적인 입장에 서 있다고 생각된다.

다음으로 이 작품의 주인공 S. Marner의 행동이 보여주는 과거지향적인 특성을 살펴보기로 한다. 그는 그의 고향 Lantern Yard에서 굳게 믿던 친구와 애인한테서 배신을 당하고 Raveloe마을로 이주해 오는데, 하나님에 대한 신앙심마저도 잃어버린 그는 이 마을에 정착한 다음에도 악의에 찬 세상을 저주하면서 오직 베짜는 일로 돈 버는 데에만 열중하는 失意와 孤獨의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그의 외딴 오두막집에 출현한 정체 모를 어린 아기가 그의 방황하던 영혼을 바로잡아 주고 옛날의 인간애와 신앙심을 회복하는 계기를 이루는데, 아기를 발견하는 순간 그의 마음 속에서 섬광처럼 빛났던 상상의 실마리가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이다. 세상을 불신하고 증오하던 그가 자기 집 난로가에서 세상 모르고 잠들어 있는 천진스러운 아기의 모습을 보았을 때, 오랫 동안 마비되었던 그의 인간애의 감수성을 일깨워 주었던 것은 오래 전 기억 속의 어린 동생의 幻影이었다. 다시 말해서, 그는 과거의 애정의 기억을 현재에 되살림으로써 비로소 현재의 인간에 대한 애정의 회복을 기할 수 있었다. 다음 인용에서 보듯이 어린 Eppie를 보는 순간 그의 머리에 떠올랐던 어린 동생의 사랑스러운 모습은 마치 먼 옛날의 애정의 힘을 현재의 순간에 전해 주는 使者와도 같은 역할을 해 주고 있다.

In utter amazement, Silas fell on his knees and bent his head low to examine the marvel: it was a sleeping child——a round, fair thing, with soft yellow rings all over its head. Could this be his little sitster come back to him in a dream——his little sister whom he had carried about in his arms for a year before she died, when he was a small boy without shoes or stockings? That was the first thought that darted across Silas's blank wonderment……he had a dreamy feeling that this child was somehow a message come to him from that far-off life: it stirred fibres that had never been moved in Raveloe——old quiverings of tenderness——old impressions of awe at the presentiment of some power presiding over his life.(p. 209–10).

Eppie를 데리고 사는 일은 S. Marner와 Raveloe마을 사람들 사이에 人情 交換의 架橋 역할을 해 주었고, 세상 사람들을 경계와 의혹의 눈으로 보던 그에게도 溫情과 親和의 싹이 움트기 시작하는데 이럴 즈음의 그의 마음 속에서 일어나고 있던 활발한 움직임은 〈과거의 회복〉이었다. 金貨 盜難 사건이 가져 왔던 심리적인 충격을 극복하고 마을 사람들에 대한 不信을 씻는 가운데 신의 섭리에 눈뜨는 일은 어렸을 때 가졌던 두터운 신앙심을 회복함으로써 비로소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이다. 과거로부터의 빛을 얻어서만 현재 문제의 성격을 밝힐 수 있고 과거와 현재의 의식적인 결합 위에서

9) George Eliot, *Silas Marner* (서울 : 新雅社, 1979), p. 295. 以下 이 작품의 인용은 이 책에 의함.

만 미래의 방향 설정을 도모할 수 있다고 하는 G. Eliot의 保守主義를 다음과 같은 S. Marner의 심리 묘사에서 발견할 수가 있을 것이다.

> ……as, with reawakening sensibilities, memory also reawakened, he had begun to ponder over[1] the elements of his old faith, and blend them with his new impressions, till he recovered a consciousness of unity between his past and present. (p. 254)

S. Marner는 또한 그의 일상 생활의 평범한 습관에 있어서도 과거의 추억을 아끼고 간직하려는 다정다감하면서도 보수주의적인 감수성을 보여주고 있다. 그가 Raveloe마을로 이주해 와서 외롭고 失意에 찬 독신 생활을 하던 어느 날, 물 길어 나르던 물동이가 깨어졌을 때 이미 아무런 사용 가치도 없게 된 깨진 조각들을 주어 모아서 모양만 원상 복구한 다음 집 한 구석 잘 보이는 곳에 기념으로 세워 둔 것은 그 물건이 자기의 과거 생활에 대해 갖고 있는 상징적인 의미때문이었다. 12년 동안이나 사용해 온 그 물동이가 마치 스스로의 의지를 가지고서 그를 도와 주는 살아 있는 생물체나 된 것처럼 따뜻한 交感作用을 일으켰던 것이다.(p. 60)

또 한 번의 비슷한 대목은, S. Marner가 Eppie의 양육에다 삶의 모든 기쁨을 걸고 있을 때의 일이다. 그 당시 그는 불편한 벽돌 화로를 쓰고 있었는데, 그 노후한 구식 시설을 고치지 않고 그대로 둔 것은 어린 Eppie가 그의 집에 제 발로 걸어 들어와서 잠자고 있었던 그 희한한 慶事가 바로 그 자리에서 일어났기 때문이다. 그의 생각에는 그 벽돌 화로에는 그의 외로운 마음을 지켜 보고 이해해 주는 무슨 정령같은 것이 살고 있다고 여겨져서 감히 철거할 엄두를 못 내고 있었던 것이다.(p. 252).

그런데, 이 소설 가운데에서 작자의 보수주의적인 성향을 가장 강력하게 보여주는 것은 S. Marner의 상실되었던 신앙심이 회복되는 무대인 Raveloe 마을의 특징일 것이다. 그의 고향 Lantern Yard는 지방의 간선 도로변에 위치한 마을로서 근대적인 산업혁명과 과학 문명의 혜택을 많이 받고 있는데 비하여, 그가 생애의 후반기를 살았던 Raveloe 마을은 간선 도로에서 멀리 떨어진 산간 벽지에 있었다. 그런데, S. Marner가 Eppie를 얻음으로써 고독과 不信仰의 늪에서 헤어나 새로운 희망을 되찾은 곳으로 설정된 무대가 근대 문명의 빛이 아직 제대로 찾아 들지 못한 낙후된 곳이었다는 것은 작가의 의미심장한 文明觀을 대변해 주는 것 같다. 다시 말해서 인간의 심성을 醇化시키고 공동체 구성원간의 따뜻한 友愛를 키워 주려면 Raveloe 마을처럼 大自然의 風致가 기계 문명에 의해 파손되지 않고, 인간 관계의 밀착성이 자본주의적인 市場 交易 體制에 의해 말살되지 않은 곳이라야 한다는 보수주의적인 문명관이 함축되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특히 주목을 끄는 것은, 그에게 살인 누명을 씌우고 거짓된 교회 재판을 실시하던 Lantern Yard마을은 嚴正한 敎理 遵守와 戒律을 중시하는 淸敎徒 사회였고, 괴팍한 성격의 이 織造工에게 寬大한 包容力으로써 再生의 길을 열어 준 Raveloe 마을은 전통적 관습을 중시하고 신앙 생활의 대범한 自律性을 허용하는 영국 國敎會 사회였다는 사실이다. 인간 정신에 대한 인위적인 規律化를 강요했을 때 얼마나 추악하고 歪曲된 人間 變造가 생겨 날 것인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대목은, S. Marner가 이 소설의 끝 장면에서 長成한 Eppie와 더불어 그의 옛 고향 Lantern Yard를 찾아갔을 때, 그곳은 벌써 옛 추억의 따뜻한 친근감과는 거리가 먼 낯설고 흉물스러운 非人間化의 모습

을 떠고 있었다는 묘사의 부분이다. 공장 지대로 변해 있는 그곳의 살풍경함은 Eppie로 하여금 경악과 실망의 발언을 하게 했고, S. Marner로 하여금 고향을 잃어 버렸다는 탄식을 발하게 했던 것이다.(pp. 309-311)

2. T. Hardy에 있어서의 過去의 意味 : 現在는 過去의 業報에 의해 決定된다.

가. *The Return of the Native*

앞에서 살펴본대로, G. Eliot에 있어서의 過去는 대체로 인간의 의지에 의해 선택됨으로써 비로소 그 힘과 의미를 발휘하고 있는데에 비하여, T. Hardy에 있어서의 過去는, 인간 능력이 좌우할 수 없는 어떤 절대적인 힘, 또는 인간의 소망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거나 敵對的인 힘을 행사하는 것처럼 보인다. 우선 T. Hardy의 대표적인 소설 *The Return of the Native* 가운데에서 과거의 힘이 현재의 사건 전개에 대해 작용하는 과정을 살펴보기로 한다.

우선, 이 소설 속에서 現在에 작용하는 〈過去의 힘〉을 〈주인공들 상호간에 맺어졌던 과거의 인간관계〉로 한정시켜 생각하기로 하고, 그 가운데에서도 특히 Eustacia와 Wildeve 사이의 과거의 연애 관계를 출발점으로 하여 여러 주인공들의 생애의 파탄이 연쇄적으로 초래되는 과정부터 생각해 보기로 한다. 이 소설의 앞 부분에서 Eustacia와 Wildeve는 아주 아슬 아슬한 사랑의 줄다리기 경기를 벌이고 있다. 뛰어난 미모에다 발랄한 상상력을 갖추었고 도시 지향적인 허영심에 차 있는 Eustacia는 무미건조한 Egdon 황야의 시골 생활로부터의 탈출구를 Wildeve와의 연애 속에서 찾으려 한다. 그녀가 Wildeve에게 이끌린 것은 그의 인간됨에 매력을 느꼈기 때문이 아니라 그녀의 허영심을 채워 줄 다른 남자가 가까이에 없었기 때문이었으므로 Paris에서 성공했다는 이 지방 출신의 젊은 사업가 Clym Yeobright가 귀향하게 되자 그녀의 마음을 대번에 사로잡아 버리고 兩人은 마침내 결혼까지 하게 된다. 결국 Wildeve는 Eustacia에게 배신당했다는 씁쓸한 마음으로 Thomasin과 결혼하게 되는데, 일단 이렇게 마무리되었다고 생각되던 두 사람 사이의 한 때의 연애 사건이 연쇄적인 수많은 불행을 낳는 震源地가 되어 버린다.

방종하고 경박하며 자기 과시적인 Wildeve는 시골 취미의 아내 Thomasin에게 애정을 느끼지 못하는데다 Eustacia의 화사한 여성 매력에 대해 미련을 버리지 못하며, 자기에게 굴욕적인 결혼을 시킨 Yeobright家에 대해 열등감과 복수심을 품게 된다. 그러던 차에 Clym의 어머니인 Yeobright 부인이 Thomasin에게로 가야할 遺産인 金貨 꾸러미를, 그녀에게 방문 온 Wildeve에게 주지 않고 자기 집 하인 Christian으로 하여금 전달하도록 하는데 Wildeve는 이러한 처사를 두고 Thomasin 남편으로서의 자신의 존재를 무시하는 것으로 과잉 해석한다. 자존심이 상한 Wildeve는 무지몽매한 Christian과의 주사위 노름에서 그 금화를 모두 따 버리는데 가까이 있던 물감 장수 D. Venn이 이 돈을 다시 따서 Thomasin에게 모두 넘겨 주지만 이것이 더 큰 불행의 씨앗이 된다. Wildeve가 金貨를 모두 가져 갔다는 말을 들은 Yeobright 부인은, 우연히 노상에서 만난 Eustacia에게 Wildeve로부터 선물받은 일이 없느냐고 묻는데(그 유산은 Thomasin과 그의 사촌 Clym이 공동 분배할 것이었으므로), 민감한 성질의 이 며느리는 그 물음이 자기들의 옛날 연애 관계를 염두에 둔 것인 줄 착각

하고 열띤 언쟁을 벌인다.

과거의 연애 사건을 배경으로 한 Wildeve의 개입으로 인하여 이렇게 악화되었던 姑婦間의 不和는 얼마 후에 또 다시 Wildeve의 懷舊的인 행동을 기화로 하여 더욱 큰 불행으로 치닫게 된다. 제각기 자신의 配偶者에게서 애정을 느끼지 못하던 Wildeve와 Eustacia는(Eustacia에게 Egdon 脫出의 꿈을 실현시켜 주리라던 Clym은 이제 와서는 전원 취미를 고집하는 미천한 시골 나뭇군이 되어 있었다) 다시 不義의 접근을 시도하게 되는데, 하필이면 이들 두 남녀가 密愛中인 Clym의 집으로 Yeobright 부인이 방문오게 됨으로써 결정적인 비극의 발단을 이루고 마는 것이다. 밀회중인 情夫의 존재를 숨기고 싶은 Eustacia는 이층 창밖으로 보이는 시어머니의 방문 모습을 모른 채 해 버렸고 나중에 이 사실을 안 Clym은 그녀를 친정 집으로 쫓아 버림으로써 夫婦 不和는 극도에 다다르게 된다.

얼마 후에 Eustacia가 폭우 속에 휘말려 죽을 때에도 그녀와 Wildeve와의 密愛관계는 비극 전개의 주요한 실마리 역할을 하고 있다. Clym은 부부 별거의 고민 끝에 화해의 편지를 띄우지만 중대한 내용을 담은 편지가 밤 늦게 도착하여 자기 집 응접실의 난로가에서 잠자고 있는 줄 모르는 Eustacia는 바로 그 날 밤 자정 때에 Wildeve의 도움으로 Budmouth로 탈출할 계획이 되어 있었다. 이 때에, 그녀의 탈출 계획이 이들 남녀의 옛날 情分을 믿는 위에서 이루어 졌다는 점뿐만이 아니라, Eustacia의 하인 Charley가 그녀에게 기분 전환이 되도록 피어 올린 화톳불이 Wildeve에게는 그녀가 자기를 만나자는 신호로 해석되었다는 점까지도, 이들이 숨겨 두었던 과거의 사연이 얼마나 끈질기게 현재 사건의 渦中에서 그 위력을 발휘하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들 두 남녀는 옛날 연애 시절에 화톳불을 신호로 하여 밀회 약속을 했었던 것이다). 한 밤중에 집을 뛰쳐 나온 Eustacia가, 믿었던 Wildeve의 조력도 얻지 못하고 캄캄한 어둠 속 폭풍우가 내리치는 가운데 길을 잃고 헤메다가 못에 빠져 죽고 그녀를 살리려고 뒤쫓아 들어간 Wildeve까지 익사하게 되는 사건 구성은, 그들이 한 때 저지른 연애 사건의 끝 모르는 그물에 걸려 마지막 순간까지도 수난을 당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다음에는, 이 작품 속에서 비극적인 결말을 가져오는 막강한 과거의 힘은 어떠한 성격의 것인지를 분석해 보기로 한다. 이 작품의 주인공들을 파국으로 몰아 넣는 과거의 힘은 인간적인 요소와 비인간적인 요소의 두 가지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을 것 같다. 여기서 인간적인 요소라 함은 주인공들 자신의 성격에서 필연적으로 유도되는 인간 관계 상의 不和를 가리키고, 非人間的인 要素라 함은 주인공들의 의지나 성격과는 무관하게 그들 사이의 애정 관계를 악화시키는 사건 전개 상의 우연한 일치를 가리킨다.

주인공들의 비극적인 파멸의 한 가지 원인은 우선 주인공들 자신의 성격 속에서 발견될 수 있다. Eustacia가 Wileve와의 애정없는 연애를 시작한 것이나 그것을 포기한 것이나 그 가장 큰 계기는 그녀의 속절없는 자만심과 허영심에서부터 나왔던 것이고, 화려한 도시에서 성공한 사업가라고 해서 Clym을 사랑했던 것이나 그의 답답한 시골 취미에 싫증이 나서 夫婦 不和를 自招한 것이나, 그리고 자기의 게으른 도시 취미를 시어머니가 타박한다고 해서 며느리로서의 순종적인 태도를 지키지 못한 것이나, 이 모든 것은 그녀의 인격적인 결함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Clym 부부가 가정 파탄에 빠지는 데에는 또한 Clym 자신의 我執스러운 包容力 부족과 Yeobright 부인의 孤高하고 폐쇄적인 성격에도 그 책임의 一端이 있었다. 또한 Wildeve의 경박한 애정 行脚은 Yeobright家의 불행에

턱없이 끼어드는 어리석음을 낳게 했다.

다른 한편, 이 소설의 비극적인 종말을 초래하는 非人間的인 요소, 즉 사건 전개의 우연성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는 위에서 대강 살펴본 대로이다. Yeobright 부인이 Clym 男妹에게 분배될 金貨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하인 Christian, Wildeve, 물감 장수 D. Venn 등은 행위자 자신도 모르게 기묘한 액운과 얽혀서 Yeobright家의 가정 불화를 재촉하고 있었다. 또한, Yeobright 부인이 아들네 집으로 和解 訪問을 가는 날에는 아들이 아래 층에서 낮잠 자는 동안에 이 층에서 情夫와 밀회중이던 며느리는 창밖으로 얼굴을 내 보여서 老婦人의 오해를 사게 했고, 무시당했다는 분노감을 머금고 집으로 돌아가던 노부인은 중도에서 독사에 물려 죽는 등 사건 전개의 과정은 당사자들의 의지와는 전혀 무관한 불행을 낳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 날 밤 Eustacia의 비극적인 탈출 시도 행동도, Clym이 보낸 화해 편지의 아슬 아슬한 전달 실패, 화톳불 신호의 오인, 救助行 인물들의 길 엇갈림, 폭풍우의 급습 등 어이없을 정도로 비비꼬인 사건의 추이때문에 파국의 종말을 맞고 있는데 그것은 행위자 자신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우연성의 소치이다.

비극적 결말의 원인으로서의 인간적인 요소는 인간 자신의 自己 省察과 分析에 의하여 그 因果關係를 糾明할 수 있는데 반하여, 非人間的인 요소는 인과관계에 대한 분석과 예측이 불가능하고 따라서 그 결과의 책임을 행동자에게 물을 수 없는 성질의 것이다. 앞의 경우는 인간의 비극을 인간성의 결함이 초래하는 불가피한 결말로 본다는 점에서 決定論(determinism)의 입장을 낳고, 뒤의 경우는 인간을 超人間的인 運命의 희롱물로 보게 되므로 運命論(fatalism)의 입장을 낳게 된다. J. Warren Beach는 이와 관련하여 결정론과 운명론을 비교하면서 T. Hardy를 決定論者로 보는 것이 좋겠다고 말하고 있다.

> Determinism is the scientific counterpart of fatalism, and throws more light on destiny by virtue of its diligence in the searching out of natural law. Mr. Hardy is rather a determinist than a fatalist. When he speaks most directly and unmistakably for himself, it is to insitst on the universal working of the laws of cause and effect.[10]

다시 말해서 T. Hardy 소설의 비극적인 결말은 주인공들 자신의 인간적인 결함에 있는 것이지 因果關係를 따짐이 없이 우연적이고 不可抗力的인 悲運의 탓으로 돌려서는 안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문책받아야 할 주인공의 성격 결함이라는 것 자체가 T. Hardy 소설 속에서는 인간 의지로는 좌우할 수 없는 운명처럼 느껴진다. J. W. Beach 자신도, 운명론자는 인간의 비극을 恣意的이고 超自然的인 神秘力에 의한 것이라고 보는데 비해 決定論者는 인간 자신의 무능과 무지에 의한 것으로 본다고 구별 하면서도, 兩者의 입장 모두가 인간의 타고난 무력함에 대해서는 비관론적인 공통된 관점을 취한다고 말하고 있다.

---

10) Joseph W. Beach, 〈*The Return of the Native*〉
이 essay는 James Gindin, ed., *The Return of the Native* (New York: Norton & Company, 1969)에 게재됨.

> The point in which determinism and fatalism agree is the helplessness of the individual will in things. Only the determinist conceives the will in things as the sum of the natural forces with which we have to cope, whereas the fatalist tends to a more religious interpretation of that will as truly and literally a will, an arbitrary power, a personal force like our own.[11]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해 주는 한 가지 사실은 T. Hardy 소설의 주인공들에서 보는 不變의 性格構造이다. *The Return of the Native*의 주인공들도, 작품이 시작될 때의 그들의 성격 특징은 마지막까지 그대로 남아고 자기 혁신과 過去 脫皮의 노력이 미약하다. Donald Davidson도 T.Hardy 소설의 주인공들은 그 성격의 無變化性에 있어서 다른 현대 작가들과 다르다는 요지의 다음과 같은 말을 하고 있다.

> The characters of the Wessex novels, with certain important exceptions, are fixed or "non-developing" characters. Their fortunes may change, but they do not change with their fortunes. Once fully established as characters, they move unchanged through the narrative and at the end are what they were at the beginning……In this respect they differ fundamentally from the typical characters of modern literary fiction.[12]

인간성의 무력함이나 결함 자체가 운명처럼 克服 不可能한 것으로 보일 때 위에서 구별했던 人間的 決定論까지도 非人間的 運命論의 色調를 띠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T.Hardy의작품 세계는 더욱 더 悲觀主義的인 관점위에 서게 된다. 하여간 고정불변의 주인공 성격이든 인간 의지에 역행하는 운명의 작용이든, 그것들은 과거에서부터 이미 있어온 힘이라는 점에서 前述한 바 Hardy 작품의 過去 決定論的인 특징을 뒷받침해 준다 하겠다.

나. *Tess of the d'Urbervilles*

위에서 살펴본 人間的 決定論의 觀點에서 볼 때에 *Tess of the d'Urbervilles*의 비극적인 결말을 가져온 두 가지 큰 원인은 Tess 父母의 허망한 家門 意識과 Tess의 남편 Angel의 편협된 貞操觀이라고 볼 수 있는데, 兩者가 모두 과거의 속박 속에서 현재의 독자적인 意味 追求를 포기한다는 점이 공통 된다.

우선, 과거에 집착하는 Tess 父母의 家門 意識이 작품의 비극적 전개를 유도하는 과정을 살펴보자. 庶民 生活에 自足하던 Tess의 아버지는 어느 날 우연히 마을 목사로부터 자기 집안은 지체 높은 騎士 가문의 후예라는 말을 듣고 의기양양해 지는데 이 조그만 사건은 連鎖的으로 일어나는 이 작품의 모든 불행한 사건들의 최초 발단을 이루고 있다. 家門 格上의 기쁨에 도취된 그가 마을 술집에서 폭음을 한 결과 이튿날 새벽 길의 遠距離 行商은 나이 어린 Tess 男妹가 나가게 되고 馬車 어거에 미숙했던 그들이 충돌 사고를 일으켜 아끼던 말 Prince가 죽어 버려 집안 生計 세우기가 어려워

11) 앞 책, 同一 論文.

12) Danald Davidson, 〈The Traditional Basis of Thomas Hardy's Fiction〉, 이 essay는 바로 앞 책에 게재됨.

지자 부모는 Tess에게 邑內 d'Urberville家에 찾아가서 친척임을 빙자하여 도움을 청하라는 요망을 하게 되고, Tess는 자기 잘못때문에 생긴 家計 문제인지라 부모의 말을 거절하지 못한다. 그러나 d'Urberville家를 통한 家運 回復은 실패하고 도리어 무뢰한 Alec에 의한 Tess의 순결 상실이라는 큰 厄禍를 당할 따름이다.

그런데 Tess 父母의 집요한 家門 意識이 초래하는 불행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는다. 자신의 뛰어난 美貌와 勤實한 성품 덕분에 Angel로부터의 求愛를 얻게된 Tess가 순결 상실의 과거를 결혼 전에 고백하지 못한 것은 실속없이 가문을 내세우는 어머니로부터의 간곡한 만류가 큰 작용을 하고 있다. 물론 Tess의 과거 고백을 방해하는 데에는 상황 전개의 우연성도 크게 작용하고 있지만 다음과 같은 대목에서 보듯이, Angel과의 成婚을 노린 허영심에 찬 모친의 경고 편지가 딸의 행동에 끼친 영향이 크다 하겠다.

> Her mother did not see life as Tess saw it. That haunting episode of bygone days was to her mother but a passing accident. But perhaps her mother was right as to the course to be followed, whatever she might be in her reasons. Silence seemed, on the face of it, best for her adored one's happiness: silence it should be.[13]

다음에 생각해 보려는 것은 Tess의 불행을 초래하는 Angel의 保守的인 貞操觀의 문제이다. 고루한 인습에 젖은 Angel이 남자의 婚前 純潔은 문제삼지 않으면서 여자의 그것만을 문제시하여 아내에 대한 남편의 책임을 돌보지 않았음은 그동안의 수많은 독자들과 비평가들에 의해 지적되어온 비난 사항이지만[14], 여기서는 그의 편견의 過去 指向性에 각별히 주목하고자 한다. Tess의 과거 고백을 들은 Angel이 夫人 遺棄라는 중대 죄악을 범하는 것은 그의 인간 평가 기준이 그만큼 과거의 행적에 중점을두기 때문이었다고 볼 수 있다. Angel은 아내인 Tess가 자기를 진실로 사랑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그 아내가 그의 희망인 農場主의 內助役으로서 아주 適任者인데다 뛰어난 미모와 여성 매력을 갖추고 있다는 것도 인정하고 있었으며, 그녀에 대한 불만 요소는 단 하나, 과거에 있었던 그녀의 純潔 喪失이었다. 그리고 서민 태생으로 생각되던 Tess가 몰락한 양반 집 출신이라는 것을 알게 된 Angel이 가문의 쇠퇴가 곧 인간 의지의 쇠퇴를 뜻한다는 극히 決定論的인 태도를 보여주는 것도(p. 264) 그의 가치 기준이 과거 내용에 크게 얽매어 있음을 보여준다 하겠다.

그리고, 남편의 버림을 받게 되는 Tess는 자기의 과거 잘못에 대한 남편의 처사에 承服해 버림으로써 아내로서의 정당한 권리를 포기해 버렸고(p. 332), 자기의 卑賤한 현재 신분에 대한 열등의식

---

13) Thomas Hardy, *Tess of the d'Urbervilles* (London: Macmillan & Co. Ltd., 1957), p. 220. 以下 이 작품의 인용은 이 책에 의함.

14) Angel의 貞操觀이 과거 인습에 얽매어 있는 점에 대해서는 G. D. Klingopulos도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 Much of Tess's suffering results from Angl's obduracy which seemed unreal even to Hardy: 'With all his attempted independence of judgement, this advanced and well-meaning young man··· was yet the slave to custom and conventionality.
> 以上 Boris Ford, ed., *The Pelican Guide to English Literature* (Harnondsworth, Middlesex: Penguin Books Ltd., 1980), p. 416에서 인용함.

에 사로잡혀 시부모에 대한 助力 요청을 단념하고 말았는데(p. 339), 이 점도 과감한 과거 탈피 의식의 부족이 意外의 불행을 초래하는 좋은 예라고 생각된다. Tess 자신도 그녀의 부모와 Angel 처럼, 현재의 행동 방향을 스스로의 독자적인 판단 기준보다도 과거 전통의 인습적인 기준에다 종속시켰다는 점에서, G. Eliot에게서 보았던 바 〈현재의 인간이 과거를 해석한다〉는 범주와는 구별된다고 생각되는 것이다.

다음에, 非人間的인 運命論의 관점에서 볼 때에, 이 작품 가운데에 나타나고 있는 운명으로서의 과거의 힘은 Tess와 Alec 사이에서 발견된다. 이들 남녀가 가졌던 不意의 因緣이 끝까지 이어지면서 그녀를 종국적인 파멸로 이끌어 가는 스토리 전개는 非人間的인 요소인 偶然性에 바탕을 두고있다. 고독과 失意 속의 Tess를 유혹하는 남자가 하필이면 옛날의 불량 청년 Alec이어야 할 이유는 무엇인가. Tess에게는 초면의 남자에게서도 유혹받을 수 있을 만큼 여성 매력이 있었던 것이다.

더구나, 과거의 인연을 현재에 되살리는 그들의 관계가 기구한 운명이라고 느껴지는 것은 局外者로서의 관찰이기만 한 것이 아니다. 즉, Tess 자신이 미래에 대해 느끼는 不吉한 예감과, 현재로 뻗쳐 오는 과거의 억센 손길에 대한 기묘한 회상도 운명론자로서의 그녀의 성격을 보여주는 것이다. Tess는 Alec을 처음 만나는 날 그가 선사해 준 장미꽃들을 만지다가 장미 가시가 턱에 찔리자 그들 사이에 있을 불행한 미래를 벌써부터 예감하고 있다 (p. 54-5). Tess는 또한 오랫동안 잊고 있던 Alec이 순회 설교사로 변신해 있는 모습을 보고서 과거의 인연이 그녀의 앞날을 옭아 매는 것이 불가피할 것임을 육감적으로 느끼고 있다.

> ...the break of continuity between her earlier and present existence, which she had hoped for, had not, after all, taken place. Bygones would never be complete bygones till she was a bygone herself. (p. 345).

그리고 Tess가 Angel과의 애정 회복을 위하여 충동적으로 Alec을 살해한 다음 Angel을 뒤쫓아가서 자기의 범행은 이미 오래 전에 예견되어 오던 것이었음을 토로하고 있기도 하다.(p. 431)

그 밖에도, 마차 위에서의 불행한 情死에 관한 d'Urberville 집안의 전설과[15] Wessex 지방 주민들의 운명론적인 迷信 얘기가 이 작품 곳곳에 삽입되고 있고, 살인범 Tess가 체포되는 장소마저도 석기시대의 유적지인 Stonehenge로 설정되어 있어서 인간 세계 속으로 길게 드리워 진 운명의 어두운 그림자를 섬뜩하게 느끼게 해 준다.

다. *The Mayor of Casterbridge*

*The Mayor of Casterbridge*의 비극적인 결말을 가져오는 원인은 물론 주인공 Henchard 자신의 衝

15) d'Urberville 집안 사람들에게 불길한 마차 바퀴 소리가 들리는 것뿐만 아니라 Tess가 Alec을 살해하는 것까지도 그 집안의 유전적인 혈통에 의한 것으로 설명하는 관점이 있는데 이는 過去 決定論의 극단적인 예라고 볼 수 있다.

以上은 「19世紀 英國小說硏究」(한국영어영문학회편, 民音社刊, 1981)에 실린 李泰東의 논문 〈하아디의 작중 인물의 유전 문제〉를 참조.

動的이고 感傷的인 성격 속에서 감동적으로 찾아볼 수 있지만, 本 論考의 목적에 맞추어서 과거의 인간 관계가 현재의 인간 행동에 대해 행사하는 영향력을 중점적으로 고찰해 보기로 한다.

Henchard의 행동에 미치는 과거 사건의 영향력을 가장 심도 있게 보여주는 것은 의붓딸 Elizabeth에 대한 그의 태도이다. 남편 Henchard의 버림을 받았던 Susan은 오랫 동안의 수소문 끝에 Casterbridge市의 市長으로 출세한 Henchard와의 再結合을 이루게 되지만, 同居中인 Elizabeth가 그의 딸이 아니라 실종된 선원 Newson의 딸임을 알리는 편지를 써 놓고 병사해 버린다. 그 즈음에 이미 곡물 도매업에 실패하고 시민들의 신임을 잃고 있던 Henchard는 Elizabeth와의 情分을 외로운 자기 마음의 마지막 의지처로 여기고 있었다. 그는 자기가 Elizabeth의 아버지임을 증명하기 위하여 Susan이 써 놓은 편지를 펼쳐 보지만 그 속의 내용은 오히려 자기의 생각과는 정반대였다. Henchard의 파멸을 확고히 만들고 아울러서 Hardy작품에 있어서의 過去 決定論的인 주인공 특성을 明示해 주는 것이 바로 이 충격의 순간에 있어서의 그의 태도이다. 우선 그는 자신의 현재의 고독감을 해소하는 데에 있어서 이미 過去之事가 되어 버린 因緣에 대해 지나치게 戀戀하고 있는 것 같다. Elizabeth의 生父가 Newson임이 알려진 다음에도 사실의 眞相을 본인들에게 숨김으로써 未來의 파멸을 준비하고 있는 것은 그의 現在 意識이 過去의 束縛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되는 것이다. 絶對的인 過去所産으로서의 血肉 關係에 絶望하는 Henchard의 決定論的 敗北主義는, 養育의 情分이 血肉의 情理 이상으로 두터울 수 있다고 믿는 S. Marner의 養女 Eppie의 人道的인 自由 意志와 좋은 대조를 이루고 있다. 만약에 Henchard가 좀 더 능동적인 進就性을 가졌드라면, Elizabeth의 生父 Newson이 나타났을 때 과거의 사실을 솔직히 인정하면서도 새로운 次元의 인간 관계를 모색했을 것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Elizabeth의 결혼식 날에 있었던 바와 같은 그녀의 무자비한 義絶宣言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다. 또한, Donald Farfrae에 대한 원한 때문에 Donald-Elizabeth 兩人의 결혼에 반대하는[16] Henchard의 폐쇄적인 태도도 우리의 주목을 끈다. G. Eliot作 *The Mill on the Floss*의 Tom이 부친 遺言의 實現이라는 뚜렷한 목적 의식 아래 Maggie-Philip의 결혼에 반대했던 데에 비하여 Henchard는 과거 사건에 대한 先入見 이외에 그들의 결혼에 반대할 아무 까닭도 없었다는 점에서 주인공의 행동을 뒷받침하는 意識的인 動因, 즉 合目的的인 自由 意志가 결핍되어 있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과거의 내용을 능동적으로 이용하고 주체적으로 해석하지 못함으로써 과거의 因緣에 매양 이끌려 다니는 주인공 자신의 수동적 폐쇄적인 행동 방식이 우리의 주목을 끌고 있다. 그와 동시에 인간의 注意力 限界를 넘어서 어딘가에 숨겨져 있던 과거의 내용이 不時에 그 거대한 모습을 나타냄으로써 주인공의 폭 넓은 행동 가능성을 억제하는 상황 전개는 인간 존재의 無力

16) Instead of thinking that a union between his cherished stepdaughter and the energetic thriving Donald was a thing to be desired for her good and his own, he hated the very possibility.
以上 Thomas Hardy, *The Mayor of Casterbridge* (New York: Norton & Co., 1977), p. 318에서 인용.

함을 뼈저리게 느끼게 한다.[17] Elizabeth의 生父가 Newson이라고 하는 뜻 밖의 사실이 드러나고, 죽었으리라던 그 生父가 느닷없이 나타나서 그 사실을 확인시킴으로써 Henchard의 人格을 破局으로 몰아 넣는가 하면, 20년 가까운 千辛萬苦 끝에 쌓아 올린 그의 값진 명예가, 治安 判事 Henchard의 옛날 얼굴을 기억하는 한 노파의 과거 비밀 폭로에 의해 무참히 추락해 버리는 것이다 (p. 155).또한 Henchard와 Lucetta가 內緣 關係 시절에 교환했던 편지들을 처리하는 문제가 兩人에게 큰 고민 꺼리가 되는데, 이것은 過去 淸算의 어려움을 잘 말해 주고 있고, 급기야는 그 편지로 인한 비밀 탄로 때문에 Lucetta는 심적 충격을 못 이겨 죽음에까지 이르게 된다.

Ⅲ. 결　　론

인간 행동의 바탕인 現在가 다름 아닌 過去의 總和인 한에 있어서 現在 狀況에 작용하는 과거의 속박을 벗어날 도리는 源泉的으로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주어진 운명으로서의 非人間的인 환경을 극복하고 인간적인 목적과 의지를 실현하기 위하여 과거의 내용을 현재의 입장에서 再解釋·再構成하는 것이, 現在를 過去 狀況의 自然的 延長으로 當然視하는 것보다 發展的인 태도라고 생각된다. 인간 행동에 있어서의 自由의 폭이 역사 발전의 척도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때, 현재에 의한 過去 規定은 當爲로서의 삶의 모습인데 비하여 과거에 의한 現在 規定은 現實로서의 삶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다. 앞에서 말한 대로, 前者는 G. Eliot 소설의 주된 경향이고 後者는 T.Hardy소설의 주된 경향이다. *The Mill*의 Maggie의 행동은 가족 및 친구간의 유대감이라고 하는 과거의 情理가 미래지향적인 새로운 인간관계 모색을 제약하고 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人間 意志의 主體的인 판단에 의한 것이고, 과거의 의미가 현재의 삶을 풍요하게 만든다는 주인공의 幸福觀이 선택한 결단이었다. 또한 S. Marner가 의지처 없는 Eppie의 출현을 계기로 하여 어린 시절 고향에서 가졌던 신앙심과 인간애를 회복함으로써 第三의 인생을 출발했고, 그의 정성어린 양육으로 자라난 Eppie가 귀족 계급의 生父 G. Cass 대신에 서민 가정의 養父를 통한 과거와의 연속성을 택했다는 것은, 과거의 내용을 현재의 욕구 충족의 선택 재료로 생각한다는 G. Eliot의 주인공들의 특징을 잘 보여 주었다.

이에 비해서, T.Hardy주인공들의 행동은 자기의 목적 의식보다도 그것에 역행하는 과거의 끈질긴 힘에 좌우된다는 過去 決定論위에 입각해 있다. *The Return*의 Eustacia는 情夫 Wildeve와의 과거의 緣分이 연쇄적인 不祥事를 일으킴으로써 자신의 본심과는 전혀 뜻밖의 방향에서 부부 생활의 파경으로 치닫게 되고, *The Mayor*의 Henchard는 자기가 믿었던 Elizabeth와의 혈육 관계가 사실이 아니라는 불행을 不可抗力의 운명이라고 믿어버리고 기른 정이 낳은 정보다 더 두터울 수도 있다는

17) J. King은, 이 작품에서의 〈過去의 再現〉은 悲劇的 事件 해결의 실마리가 된다고 말하고 있다.
He [Henchard] cannot escape his past. ···The return of the past, in the form of his wife and Elizabeth-Jane, triggers off the tragic mechanism.
以上 Jeannette King, *Tragedy in the Victorian Novel*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78), p. 109에서 인용.

自己實現的인 思考 修正을 못하고 있다. 또한 Tess의 부모는 조상의 영광을 현재 속에서 再現하려는 억지를 씀으로써 딸의 자유 선택의 여지를 봉쇄하고 있고, Angel이 자신의 애정 욕구 실현을 위해서는 Elizabeth의 과거 잘못에 구애되지 말아야 함을 일찍 깨닫지 못하고 있는 내용도, 사회 제도와 관습이라는 外在的인 힘이 주인공의 행동을 좌우한다는 社會的 過去 決定論을 보여주고 있다.

인간 행동의 決定 要因에 대한 이들 두 작가의 相異한 관점은 필연적으로 相異한 道德觀을 낳게 된다. 즉, G. Eliot의 주인공들은 自由 意志에 대한 신념 위에서 자신의 행동과 선택에 대해서 책임을 지려 하고 있는데 비하여, Hardy의 주인공들은 운명적인 自然力에 대한 順從과 甘受만이 재난을 면할 수 있다는 극히 소극적이고 人間 卑下的인 道德律을 보여주고 있다. G. Eliot가 주인공들에 대한 도덕주의적인 심리 분석에 각별한 주의를 쏟은데 비하여 Hardy는 심리 분석보다도 주인공들의 상황 설정과 배경 묘사에 주된 관심을 쏟은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된다.[18]

G. Eliot와 같이 과거의 내용을 자신의 欲求充足을 위한 선택 대상으로 보든지 T.Hardy와같이 인간의 욕구 충족에 逆行하는 外在的인 힘으로 보든지, 이들 두 작가는 現在 속에 작용하는 過去의 막강한 決定力을 중시하는 英國的인 보수주의의 대조적인 두 가지 측면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인생의 意義와 목적을 앞으로 존재할 자신의 未來像 속에서 찾으려는 未來指向的이고 進就的인 입장도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19]

18) Walter Allen은 이같은 문제와 관련하여, 基督敎 信仰의 喪失이라는 時代相에 대한 相異한 反應 方式이 이들 두 作家의 相異한 道德觀을 낳았다고 말하고 있다. 以下 발췌는 Walter Allen, *The English Novel* (Harmondsworth, Middlesex: Penguin books Ltd., 1979)에서 인용.

Loss of faith compelled George Eliot to stress, far beyond orthodox Christianity, the individual's responsibility for his actions. For her, the choice between right and wrong was open for every human being to make; the basis of her ethics is the belief in the freedom of the will. But Hardy was scarcely a moralist at all, because in his universe morals were beside the point. (p. 246)

As a creator of character Hardy worked in a way diametrically opposite to George Eliot's. If she is a psychological novelist then Hardy is the reverse. (p. 252)

19) 過去 指向的인 英國 國民性과 대조를 이루는 未來 指向的인 美國 國民性에 대해서는, 필자의 拙稿 〈Thomas Wolfe의 *You Can't Go Home Again*에 나타난 美國 國民性〉(濟州大學校 論文集 第16輯 1983, 8)을 참고하기 바람.

Summary

The English Conservatism as Seen in G. Eliot's and T. Hardy's Novels

Yang Young-shoe

This paper is to find and analyze the English conservative attitude in G. Eliot's and T. Hardy's novels. These two authors' characters seem to be motivated with their standpoint turning to the past rather than to the futrue, and their actions are substantially bound with the contents of their former life.

But G. Eliot's characters are exerting their free will in cherishing their past human relationships and so their preference to life-continuity comes from their purposeful choice between alternatives, whereas Hardy's characters are only swayed by cosmic powers indifferent or counteracting to human purposes. Maggie in *The Mill* is so strongly attached to her family history that she cannot become self-assertive in making love with new objects, but moral justification and psychological deliberation are characteristic of her actions. Eppie chooses Silas Marner as her father because she wishes to keep up the meaning of her past life among common people, and Silas Marner can become a respectful neighbor only by recovering his past tenderness.

Contrastingly, Hardy's characters cannot decide or foretell their own course of life because of unintelligible intervention from outwards or backwards. Eustacia in *The Return* comes to destruction entangled with her former love with Wildeve and its extended influence. Tess's tradegy results from the obsessive force of the past, whether personal or social. Henchard in *The Mayor* is faced with bitter fate by unexpected emergence of his past career. Hardy's characters, therefore, have little scope for self-determination or moral responsibility.